

Newsletter

January 23, 2026

Contents

Audit

-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Accounting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2025년 12월 K-IFRS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Tax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26년 지방세제 개정 안내
-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안내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4분기·2026년 1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1.8% 전망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기간별 가중)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 처벌하여 장기간 분식 유인 차단
 - * (고의) 위반 1년 초과시 1년마다 30%씩 (중과실) 위반 2년 초과시 1년마다 20%씩 가중
- (무관용 원칙) 서류 위변조, 감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는 분식회계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여,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
- (사각지대 해소) 분식을 지시·주도한 실질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회피 소지 차단
- (자진시정 유도) 내부감사기구가 부정 적발하여 자진시정시 제재감면 확대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6.1.6일(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가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최근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으며, 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총 192건입니다.

'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 매출 원가와 기타자산, 부채가 각 2건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2025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인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하였습니다.

■ 기업 Check Point

- 감사前 재무제표는 꼭 기한내 제출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충실히 준수
-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하게 정정
-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금감원 심사, 감리 지적사례 참고

■ 감사인 Check Point

- 기업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준수여부 점검
- 2025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금감원 심사, 감리 지적사례 참고

[더 알아보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최대 840만원)를 부과하였으며, 조치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유는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관련 법규 숙지 미흡입니다.

<유의사항>

■ **(회사)** ①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②향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가중(1단계)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대표이사→주주총회 등, 감사→이사회)하여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한국회계기준원이 2025년 12월 19일 제정 공표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K-IFRS 제1001호를 전면 대체하는 기준서로 15년만에 손익계산서가 개편됩니다. 제1118호 기준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에 영업·투자·재무 범주가 신설되고,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며,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의 영업손익도 주석에 병기하게 됩니다. 동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시 발생하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PPA의 경우 미사용 전력을 재판매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파생상품 평가를 면제하는 ‘자가사용’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상 PPA에 대해서는 발전량 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물량 전체에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2025년 12월 K-IFRS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025년 12월 18일에 2025년 K-IFRS 질의회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K-IFRS 신속질의회신(17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질의회신(2건)이 공개되었습니다.

■ K-IFRS 질의회신(4건)

-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사모펀드 투자시 회계처리
- 교대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 부동산신탁사의 정비사업 관련 자금조달시 회계처리
- 교환사채 발행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 K-IFRS 신속 질의회신(17건)

- 초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사채의 조건변경
- 종속기업이 관계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지분법
- 연결손익계산서에서 비용 표시 방법:기능별 또는 성격별 분류
-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시기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 전환사채 예상 결제방법이 변경된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의 구분
- 판매장려금 인식시기
-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으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 사업부 손상평가 회수가능액 측정
-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 표시방법
-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전환사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 연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취득세 회계처리
- 옵션이 부여된 지분상품 취득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질의회신(2건)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측정
-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더 알아보기 ③ →](#)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는 2025.12.2.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육세법 등 세법개정안 1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은 지난 2025.9.3.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2026년 지방세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3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 상향(0.1%p) 조정,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해당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등입니다.

[더 알아보기 →](#)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안내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알아보기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4분기·2026년 1분기 경기 실사지수(CPA BSI)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25년 4분기 현황 및 2026년 1분기 전망에 대한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25년 4분기 BSI(현황): 101 (전분기 대비 상승, 기준치 상회)
- 2026년 1분기 BSI(전망): 108 (경기 전망, 긍정 국면 전환)
- 경기 개선 배경
 -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민간소비 개선
- 산업별 동향
 - 식음료·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현황 및 전망 지표 개선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 정책 변화, 통화정책 및 자금 조달 환경,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등

[더 알아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1.8%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를 통해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실질 GDP 성장률: 1.8%
 - 민간소비 증가율: 1.6%
 - 설비투자 증가율: 2.0% (건설투자 2.2%로 반등)
 - 수출 증가율: 1.3% (둔화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 전망 배경
 - 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소비 회복
 -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 유지, 건설투자 부진 일부 완화
- 주요 리스크 요인
 - 통상 불확실성 지속 및 미국 관세정책 영향
 - 환율 변동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가능성

[더 알아보기 →](#)

Contact us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